

KISTEP 통계 브리프 2006-25호

## OECD 국가 R&D 예측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OECD의 R&D 투자 규모 전망(PPP달러 기준)

- 2006년 중국의 R&D 투자 규모 예측치는 1,363억불(PPP \$)로 일본의 1,29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351억불로 예측됨.
- 중국의 연평균 R&D 성장률은 20.4%로서 미국 4.0%, 일본 4.5%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00-'04)은 11.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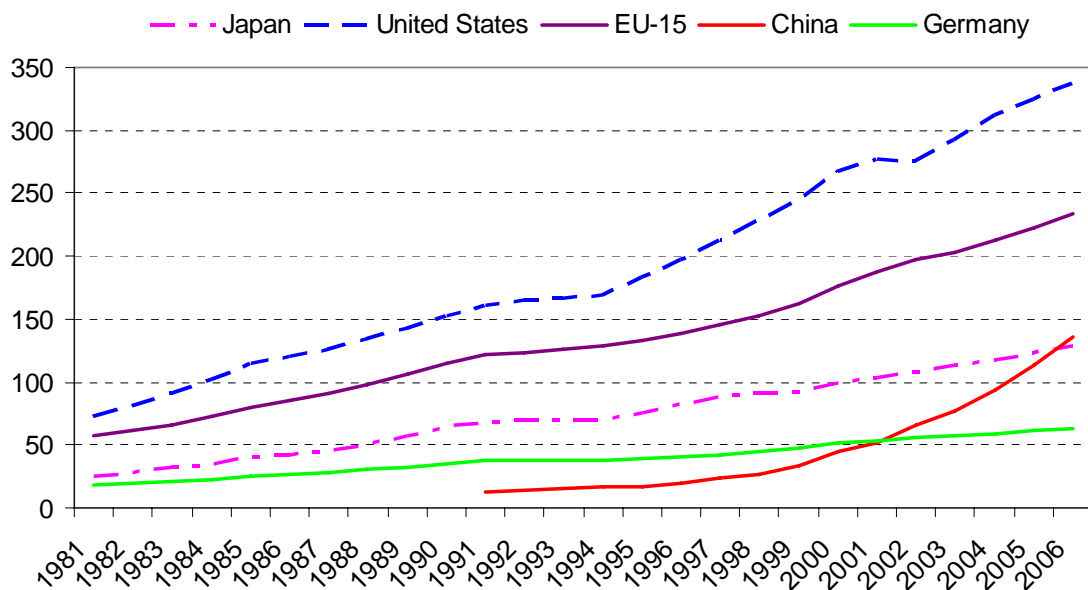
<표 1>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실적 및 전망 (단위: 십억\$, PPP\$기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망치)	2006년 (전망치)
한국	18.4	21.2	22.2	24.3	28.3	31.5	35.1
일본	98.8	104.1	108.2	112.9	118.0	123.4	129.0
중국	44.8	52.4	65.2	76.9	94.0	113.2	136.3
미국	267.8	277.8	276.3	292.4	312.5	325.0	337.9
독일	51.5	53.3	55.7	57.5	59.1	61.2	63.3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6

OECD가 '00-'0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예측

<그림 1>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실적 및 전망 (단위: 십억\$, PPP\$기준)



## □ 대미환율 기준의 연구개발투자 전망

- 대미환율 기준으로 전망한 '06년 중국 투자 규모는 352억불(US \$)로서 일본(1,488억불)의 23.7% 수준.
  - 우리나라의 '06년 투자 규모는 245억불로 예상.
  - '04년 중국의 R&D 투자실적은 238억불(US \$)로 일본(1,459억불)의 16.3%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236억불)과 유사한 수준.
- 중국의 투자 규모는 환율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나, 투자증가율은 공통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중국은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구매력 기준(PPP 환율)과 대미 환율의 차이가 큼.
  - 그러나 중국의 투자성장률은 대미환율 기준으로도 21.8%의 높은 수치를 보임.

\* 자료관련 문의: 혁신지표팀 (02-589-2829)